

#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책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우리 시대의 스테디셀러 이근미 지음

‘백범일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광장’, ‘서울, 1964년 겨울’, ‘어린 왕자’,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위에 언급한 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예상한 대로 스테디셀러다. 스테디셀러란 오랜 기간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책을 일컫는다. 베스트셀러가 일정한 기간 많이 판매된 책인데 반해 스테디셀러는 짧게는 5년, 10년 이상 걸쳐 읽힌 책이다.

다른 것을 차지하더라도 스테디셀러가 오랜 기간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출판과 사회의 관계, 구성원들의 보편적 정서가 투영돼 있는데 독자들 또한 필요에 따라 책을 선택하고 자기화한다. 시대와 함께한 스테디셀러를 분석한 책이 출간됐다. 오랫동안 복다자이네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출판사 대표로 있는 이근미 씨가 펴낸 ‘우리 시대의 스테디셀러’는 한 사람에서 모두의 이야기가 된 책에 관한 이야기다.

저자는 해방 후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별로 스테디셀러를 조명한다. 사회의 구조와 출판계의 변화를 들여다보고 시대별로 주목해야 할 주요 스테디셀러를 소개한다.

저자는 스테디셀러의 기본 요소로 ‘3L’을 꼽는다. 원칙에 충실(Legal)하고, 시

백범일지·광장·태백산맥·토지·무진기행...

해방 후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별 스테디셀러 조명

사회적 흐름·출판계 변화 들여다보기

대를 초월한 가치관(Legendry)을 담으며, 긴 생명력(Long run)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해방이후 6·25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대는 출판과 유통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더욱이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출판 소비자들이 형성되기도 않은 시기였다. 그럼에도 당시 김구의 ‘백범일지’와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지대했다. ‘백범일지’는 근대 이후 대표적인 자서전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윤동주의 삶과 문학정신과 결부돼 인기를 끌었다.

60년대 들어서면서 출판계는 단행본과 문고본 발간이 활성화됐다. 물론 전집물의 남발과 과다경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점차 문고본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이념을 담고 일어서고자 하는 대중들의 각성이 눈에 띄게 발현된 시기이기도 하다. 남과 북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이영

준을 통해 분단현실을 조망했던 ‘광장’, 4·19세대의 감수성을 정치하게 그린 ‘무진기행’이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공고화된 시기였다. 경제 성장 제일주의와 반공 이념은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왔다. 반면 이 시기는 최인호를 비롯한 젊은 작가들의 등장으로 대중문학이 활성화됐다. 어른을 위한 동화에서 모두의 잠언집이 됐던 ‘어린 왕자’, 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설파한 ‘무소유’ 등도 인기를 모았다. 산업화 시대 도시 기층민을 다뤘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당대의 현실을 짚조각해 그려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1980년대에는 ‘독재타도’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이 거리를 매웠다. 정치적 암울함 속에서도 경제 성장으로 소비문화가 활발해졌다. 이성복의 ‘똥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 기형도의 ‘입 속의 검은 잎’이 독자들의 감성을 자

극했으며 이념을 뛰어넘는 민중의 역사를 형상화한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우리 역사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본 수작으로 꼽힌다.

90년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운동권의 몰락에서 IMF체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국내 출판계는 한해 4만1700여 종의 출판물 2억 4200여만 부 발행됐으며 서점 또한 4700여 개에 달했다.

우리 문화를 새롭게 보자는 흐름과 맞물리며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유전자에서 찾아낸 진화의 세계를 조명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도 폭넓은 선택을 받았다. 이밖에 일반인에게는 역사를 경영자에게는 리더십을 일깨웠던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26년간 집필을 통해 700명을 아우른 박경리의 ‘토지’도 사랑을 받았다.

2000년대는 ‘활자에서 영상과 인터넷 시대’로 변모한 시기다. 이윤기와 함께 떠나는 신화 이야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즈를 이야기 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20세기 위대한 픽션으로 평가받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환경을 모두의 문제로 깨우친 걸작이다.

〈이디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 누가 고양이를 죽였나

## 운대영 지음

“2014년 4월 16일 이후 나는 ‘작가인 나의 죽음’을 경험했고,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으리라는 예감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 망명지인 북미에서 그러나 나는 더욱 사나운 꿈에 쫓겨 다녔다.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때 순간 나를 압박하며 괴롭혀왔다.”

2015년 1월 한국을 떠나 북미로 간 작가 운대영은 그곳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우선 단 한 편의 소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밤마다 저미죽을 치듯 한 줄 한 줄 글을 씀으로써” 비로소 자신을 작가로 인정하게 됐다고 밝힌다.

운대영의 여덟 번째 소설집 ‘누가 고양이를 죽였나’가 출간됐다. 지난 2013년 ‘도자기 박물관’ 이후 5년 여만에 펴낸 책은 모두 여덟 편의 단편이 수록돼 있다. 이번 소설집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작가 운대영에게 나타난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작가가 북미에 체류하는 동안 써오던 작품은 소설집의 앞부분에 나란히 실린 ‘서울-북미 간’, ‘나이야가라’, ‘경옥의 노래’ 세편이다. 각각의 작품에는 래프팅 사고로 죽은 딸과 여객선 침몰로 죽음을 당한 아들(‘서울-북미 간’), 6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세상을 떠난 유년을 함께했던 삼촌(‘나이야가라’), 한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 죽음을 당한 연인(‘경옥의 노래’)을 떠나보내기 위한 애도의 여행이 펼쳐진다.

김형중 문학평론가는 이번 소설집을 일컬어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들이 그랬던 것처럼 작가 운대영도, 아주 긴 여행 끝에, 애초에 인연을 맺었으나 선택하지 않았던 어떤 길 앞에 다시 서 있다”고 평한다.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홀몬전서

## 송과니 지음

“사건은 호르몬을 표준어라 하고 홀몬을 비표준어라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비표준어라는 홀몬을 쓰겠다. 자고로 비표준어인 것이기 때문이다. 기습 뛰어야겠다. 바람 불어라. 피가 두근거려라.”

철학적 성찰을 토대로 한 시집은 사유와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송과니 시인이 펴낸 ‘홀몬전서’는 언어에 대한 탐구와 깊은 탐색을 보여준다.

모두 55편의 작품이 수록된 시집은 언어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박성현 시인의 표현대로 “그의 시편들은 모두 세계를 대칭하는 문장, 곧 시인이 감각하고 사유하는 사물과 사태에 대한 대칭 혹은 ‘알레고리’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집은 모두 ‘홀몬전서’라는 연작시 형태로 구성돼 있다. 1장부터 55장까지 이어지는 작품은 기존의 시와는 변별되는 독특한 이미지와 아우라를 발산한다. 시와 언어를 조망하는 감수성은 어느 시인과는 극적으로 대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날개가 고향인 시간은 옷을 벗지 않는다./ 검은 양복 정장에서 태어난/ 그림자는 구두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슬픔이란 발톱이 지나가는/ 시간 잘 몰라 버스 한 번 타보지 못한/ 이유, 기다림은 이 새벽에/ 오랜 물음표에게서 건네받은/ 소등이라는 시계를 차고 다니다./ 점등은 어느 쪽에서 왔던 것인가.”(‘홀몬전서 4장’ 중에서)

“한 뼘 도시에 관한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은 ‘홀몬전서 4장’이라는 작품은 시인의 시적 지향성을 잘 드러낸 시다. 알레고리, 언어에 대한 대칭, 이미지의 융합이 자유롭게 펼쳐진다.

한편 송 시인은 2010년 수주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밥섬’, ‘내 지갑 속으로 이사 온 모티브’ 등을 펴냈다.



〈시산맥·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뉴욕 영화 가이드북

## 박용민 지음

영화의 대표적 명소 뉴욕을 여행한다. 뉴욕에 관한 수식어는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지만 그중 꼽는다면 단연 뉴욕은 영화의 도시다. 미국 영화의 절반 정도는 배경이 뉴욕일 정도로, 영화는 뉴욕의 모든 구성요소를 담고 있다.

미국·중동·동남아·아프리카·일본 등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이자 영화 팬인 박용민씨는 전편에 해당하는 ‘영화, 뉴욕을 찍다’를 통해 뉴욕을 구역별로 산책하면서 그곳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장면들을 소개했다.

이번 책 ‘뉴욕 영화 가이드북’은 뉴욕의 불거리, 교통, 호텔, 식당, 쇼핑 그리고 그에 관한 434편의 영화들을 소개한다.

실드의 보호소를 뛰쳐나온 캄피 아메리카가 얼음에 갇힌 채 수십 년이 흘렀음을 깨닫고 당황하던 타임스퀘어를 거닐고, 밤이 되면 되살아난 전시물들이 난장판을 만들 뉴욕 자연사박물관에도 간다. 또 배트맨이 부업 삼아 영업하고 있는 웨인 엔터프라이즈의 분사 건물인 트럼프 타워로 안내한다. 이외에도 자유의 여신상과 엘리시엄, 프리덤 타워와 9·11 기념관, 카네기홀, 구겐하임미술관 등 영화에 등장하는 뉴욕의 불거리 24곳을 엄선해 소개한다.

뉴욕의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다. 데비 오션이 친구와 함께 다이아몬드 절도를 모의하던 식당 ‘베셀카’에서 동유럽 음식도 맛본다. ‘세네티피터 3’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영화 속 정준 남녀처럼 우연한 행운을 기대하기도 하고 ‘데디스 바&그릴’에서는 젊은 여사장과 노인 인턴이 직원들과 호기롭게 연극을 연출할 것을 권하기도 한다.

〈헤이박스·2만48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019 謹賀新年

### 군민에게 신뢰받고,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작은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고흥군의의회**

GOHEUNG COUNTY COUNCIL